



## 한국 판타지의 주요 등장인물과 배경 풀이 - 삼국유사와 제주무가 그리고 <신과 함께>를 중심으로

### 한국 신화의 공간

한국 신화의 배경은 천상, 지상(이승), 지하(저승), 그리고 바다와 선계로 나누어져 있다. 천상계, 바다, 선계는 보통 사람이 갈 수 없으며 신성한 존재들이 머무는 곳으로 묘사된다.

### 천상의 신 천지왕과 두 자식들

제주 무가인 <천지왕본풀이>에 따르면 천상에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 천지왕과 총명부인, 벼락장군과 우레장군이 살고 있다. 천지왕과 비슷한 옥황상제는 본래 비중이 적은 도교의 신이었지만 후대의 인기로 한국 신화 세계관 속 최고신이 됐다.

천지왕과 총명부인의 슬하엔 대별왕과 소별왕이 있다. 동생인 소별왕이 형과의 대결 끝에 속임수를 쓰고 승리하여 지상을 다스렸으며, 형인 대별왕은 저승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 저승의 재판관과 일꾼, 시왕과 차사

<오구풀이, 바리데기>에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무당들의 조상인 바리데기가 등장한다. 열 개 지옥의 재판관을 말하는 시왕은 이 바리데기가 낳은 열 명의 자식이라는 설이 있다. 흔히 저승의 지배자로 일컫는 염라대왕도 시왕 중 하나다. 차사는 망자를 저승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저승의 일꾼이다. 차사 신화인 <차사본풀이>에는 영화 <신과 함께>를 통해 유명해진 세 명의 차사인 대장 강림도령, 일직차사 해원맥, 월직차사 이덕춘 등이 등장한다.

### 일곱 지옥으로 향하는 길

망자는 우선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강인 '삼도천'(혹은 '황천') 입구에 도착하여 옷을 벗고 나무에 걸어야 한다. 옷을 벗은 망자는 저승나룻배를 타고 삼도천을 건너 지옥문에 도착한다. 지옥문에 들어서면 49일 동안 일곱 지옥을 지나며 저승시왕 중 일곱 명에게 재판을 받는다. 지옥의 이름은 각각 도산, 화당, 한빙, 검수, 발설, 독사, 거해다. 일곱 번째인 거해 지옥에서는 그간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망자의 환생 여부, 추가 재판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죄가 크다면 철빙산이란 얼음산을 맨몸으로 건너 철산, 풍도, 흑암 지옥으로 가서 추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



### 선계와 서천꽃밭

하늘도 땅도 저승도 바다도 아닌 그 중간의 세상 '선계'에는 죽은 이를 살릴 수 있는 환생꽃이 피어나는 서천꽃밭과 원천강이 있다. 제주 무가 <이공본풀이>에는 옥황상제에게 서천꽃밭을 다스리는 꽃감관으로 임명된 사라도령이 등장한다. 사라도령은 만삭의 부인 원강아미와 함께 서천꽃밭에 가던 중 출산이 가까워진 원강아미를 천년장자라는 이의 집에 맡기고 간다. 그러나 원강아미는 아들 할락궁이를 낳은 후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다. 할락궁이는 천년장자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서천꽃밭에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난 후 꽃으로 어머니를 살리고 천년장자에게 복수한 후 2대 꽃감관이 된다.

### 집을 지키는 신들

<성주풀이>에서는 집을 지키는 성주신 황우앙과 터주신 막막부인이 나온다. 또 제주도의 <문전본풀이>를 보면 집 곳곳에 자리한 신들의 이름과 사연이 나온다. 문지방에 넘어져 죽은 문전신 남선비를 비롯하여 생전 남선비의 부인이 자 부엌을 다스리게 된 조왕신 여선부인이 있다. 또 문전신과 조왕신의 다섯 아들로 집의 다섯 방위를 지키는 오방신,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인 뒷문 문신과 앞문을 지키는 막내아들 녹두생이가 있다. 화장실(축간)에는 축신이 있으며, 창고에는 구렁이나 두꺼비 또는 족제비 모습으로 나타나며 창고와 집안의 재산을 지키는 업신이 있다. 심지어 장독대에도 독을 지키고 장맛을 유지하는 산신의 부하 철룡신(철용신, 노적대신)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